

## 마법 장갑

“환자분, 몸은 좀 어때요?”

의사의 말에 나는 감았던 눈을 뜬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 나는 침대에 서 나의 몸을 천천히 일으킨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목으로 침을 삼켜보지만, 다행히 아프지 않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나 살펴본다. 다행히, 어제처럼 내 몸을 베는 것 같거나, 따끔하게 하거나, 돌덩이처럼 누르는 것 같은 통증은 없다.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은 의사는 미소를 짓는다.

“잘 되었네요. 그러면 재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과 신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해야 했던 적이 많았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나에게 향수처럼 느껴지고, 식사가 끝나고 먹는 귀여운 알약은 나의 친구이다. 많은 사람들의 수술 금액 지원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신장과 심장 문제는 해결되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지켜가면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몸을 수술하고 치료할 때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다. 하지만, 일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재활이다. 나의 근육 상태는 일반 몸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재활이 필요하다.

“재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물리치료사는 나 같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재활 시켰다고 한다. 나 또한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할 것이다.

“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볼게요.”

치료사의 명령에 따라 나는 앉아 있던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오랜만에 밟아본 세상은 포근할 줄 알았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 나는 최대한 서 있기 위해서 시도해보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않는다.

“자, 한 걸음을 떼 볼게요.”

나는 새로운 걸음을 한 번 만들어 본다.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전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걸을 수 없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걸으려고 시도한다. 척추신경을 타고 나의 고통이 말단 신경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 평형을 잡기 힘들어서 몸이 오뚜기처럼 휘청거리는 것 같다.

“너무 무리 안 해도 되요.”

물리치료사는 걱정을 하고 있다. 너무 아파서 내가 재활을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걱정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아픈 수술도 버텼기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섯 걸음을 걷고 휠체어에 다시 앉는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물리치료사는 나를 보면서 웃는다. 그때, 물리치료사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물리치료사는 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간다.

“네 선생님. 이번 환자 상태 어떠냐고요? 아, 이번에 좀 힘들 거 같은데...”

물리치료사는 나에게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 현실은 냉혹한 편이었다. 그런데, 사실 나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되면 이 앞에 마트에 가서 걸어보세요. 아, 그리고 내일 부터는 물건을 드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 장갑도 사 주시고요.”

약 2주 가량이 지났다. 나의 재활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목발을 짚은 채로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재활 상황은 확실히 다른 환자들에 비해 느렸다. 사실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하지만, 재활할수록 몸은 더 아파오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니 다들 답답해하기 시작했다. 나도 내 몸이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의 짜증적인 반영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 여기가 시장이구나!”

재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은 정말 나에게 낯선 풍경이었고,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뭔가, 외계인의 세계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송한데, 장갑은 어디 있나요?”

시장의 허름한 옷 가게에 들어가서 간신히 질문을 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장갑이 놓여진 진열대를 살핀다. 대부분의 장갑이 나의 손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한숨을 쉬면서 돌아보려는 순간, 진열대 구석에 있는 그 장갑을 만나게 되었다. 검은색의 가죽으로 이루어진 장갑은, 링거 자국이 남아 있는 나의 손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장갑을 본 순간, 다른 장갑은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장갑이 나에게 멋있는 패션 아이템이 되어줄까?”

텔레비전에 보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왜인지 모르게 이 장갑을 쓰면 멋있어 보일 것 같았다.

“이걸로 주세요!”

나는 빠르게 집에 와서 장갑을 착용해 보았다. 뼈마디만 남은 험쵸한 손을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나를 뽀나 장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장갑 안에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장갑 안에 들어 있는 종이를 빼내서 읽어 보았다.

‘마법 장갑을 착용하게 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장갑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장갑을 착용한 채로 당신이 원하는 몸을 가진 사람과 터치하세요. 그러면 그의 몸이 복사되어 당신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뭐야, 누가 장난치고 있어!”

나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설명서를 버리지는 않고 내 방 안의 서랍에다가 넣어두었다. 물론 누가 장난치는 것이 편하겠지만, 약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구했던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었던 것 같다. 내일 있을 재활 수업을 기대하면서 나는 잠이 들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장갑이 너무 멋있네요.”

“운이 좋게 좋은 장갑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물리치료사는 서로 웃으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오늘도 역시 목발을 짚고 걷다가, 목발을 빼고 걷는 것을 시도해본다. 역시나 아프지만, 이제 아픈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기로 결정한다.

“선생님 저도 잡아주세요!”

이제 그 장갑 안에 있는 글귀가 맞는지 확인해볼 시간이다. 나는 장갑을 낀 상태로 선생님의 팔을 찾는다. 온기가 나의 장갑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걸린다. 피가 잘 안 통해서 손이 차가웠던 적이 많은 나에게 느껴지는 설레는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그 설레임도 오래 가지 못했다.

“아직도 다리가 아프세요?”

나는 찡그린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아직도 심각한 통증이 나에게 느껴지고 있었다. 생각보다, 훈련의 시간이 오래 걸릴 모양이었다. 물리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시간에는 다른 수단을 시도해보자고 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나를 신경쓰느라 노력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감사할 뿐이었다. 집으로 와서 장갑을 벗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어차피 노력을 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남의 몸을 가져올 안일한 생각만 내가 잘못이었다.

“그런 미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뭐!”

남들이 보기에 나는 달팽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잠을 청했다.

“아, 잘 잤다.”

알람 소리에 나는 아무 의식 없이 기지개를 켜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보통 아무 생각없이 몸을 쭉 늘리다가 근육 때문에 아프곤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상쾌한 것일까? 눈을 뜨고 상쾌한 기분을 잠깐 즐기다가, 목발을 찾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본다.

“목발, 목발...”

두 다리를 땅에 닿은 순간, 몸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 보았다. 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왜 안 아픈 거지?”

나는 점프도 해 보고, 뛰어 보기도 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홍해의 기적과 똑 같은 느낌이었다.

“설마, 정말로 물리치료사의 몸을 가지고 온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설명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새로운 글이 적혀져 있었다.

‘처음에는 몸을 인식하고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목발을 짚지 않고 물리치료사에게 걸어갔다. 물리치료사 또한 하루만에 목발을 짚지 않고 걷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에게 복사된지는 모르고, 내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에만 신기함을 느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군요.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동안 재활 검사를 하느라 시간이 다 갔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나는 석양을 보면서 집으로 빠르게 달렸다. 가슴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차고 땀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두근거리고 벅찬 기분을 처음 느껴보았다. 나에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참을 수 없는 기분이 가슴 속에서 벅차올랐다. 부모님도 내가 목발을 안 짚는 것을 보고 정말로 축하해 주었다. 오늘은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 하루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제,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음 날, 재활 검사의 결과가 나왔다. 나는 정상인의 근력을 모두 회복하여 더 이상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회복이 빠른 환자는 처음이라며 물리치료사가 나에게 축하를 해 주었지만, 사실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의 장갑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몸을 복사했기에 내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물리치료사의 몸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 신나게 뛰어다녔다. 나는 이 장갑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어제 봤던 설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장갑을 끼고 여러 명의 몸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 효과는 중첩됩니다.’

이 때, 거리에 나의 눈을 잡아서 끄는 광고가 생겼다.

‘헬스장 오픈 기념으로 무료 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나에게 온 천금 같은 기회였다. 분명히 헬스 트레이너가 PT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바로 광고에 나온, 헬스장으로 가서 무료 PT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바로 헬스 트레이너가 배치 되었다.

“그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해 보셨다고요?”

“네, 투병 생활을 하느라고요. 지금부터 운동을 할 겁니다.”

“우리 헬스장을 찾아주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일 겁니다.”

그렇게 헬스 트레이너와의 PT가 시작되었다. 헬스 트레이너는 다양한 맨몸 운동을 가르쳐 준다. 나는 이 운동들이 정말 힘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열심히 했던 몸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하지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저 기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저 기구들은 근력 운동 기구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 기구를 나에게 시연해 준다. 이제, 드디어 타이밍을 잡을 시간이 왔다. 나는 헬스 트레이너가 말한 대로 따라해 본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지만, 일부러 이해하지 못한 척을 하며 이상하게 동작을 한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원님, 제가 동작을 한 상태로 힘을 주고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제 근육을 만져 보시겠어요?”

와, 나는 이렇게 쉽게 기회가 올 줄 몰랐다. 원래 계획은 운동하면서 근육이 멎었다고 하면서 몰래 만져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트레이닝 복을 입고 있지만, 선명한 복근과 가슴, 다부진 팔뚝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나는 저 몸을 가질 생각에 속으로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짓는다. 헬스 트레이너는 내가 왜 웃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나는 드디어 작업을 쳐 보기로 한다.

“아, 이두근과 삼두근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군요. 제가 정확히 몰랐네요.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다 보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 되죠.”

헬스 트레이너는 나의 속마음도 모르고 칭찬을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헬스 트레이너가 힘을 주는 부위를 만져본다. 돌처럼 딱딱해진 근육과 그 위로 흘러내리는 땀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탐스럽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 치료사의 몸을 만질 때와 다르게 몸이 빠르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헬스 트레이너를 따라 운동을 하니, 생각보다 많은 땀이 나는 것이 당황스럽다.

“좀 더우시죠?”

“네, 좀 덥네요.”

“원래 처음에 운동하면 땀 많이 나요!”

“아 그렇죠, 뭐....”

나는 장갑의 비밀을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얼버무리면서 운동을 했다.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게 되어 유익하지만, 저번과는 다르게 몸이 빨리 뜨거워지는 것이 뭔가 수상해서 빠르게 집에 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등롱하게 된다면 다음에 또 올게요!”

시설은 괜찮았지만 갑자기 몸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헬스장에서 이상하게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 헬스장은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으로 뛰어간 나는 온 몸이 화끈 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피어 오르는 꽃봉오리처럼 나의 몸에 근육들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평평하던 나의 가슴이 둥글게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팔 근육은 갈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6팩 복근은 유리병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인다. 등근육은 가파른 산 같아 보이고, 다리 근육 또한 거대한 종아리와 탄탄한 허벅지가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반나절만에 달라진 몸을 생각해보면서 그는 서랍 안에 있는 설명서를 다시 꺼내 읽어본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몸을 인식하고 본인의 몸에 적용하는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그동안 몸이 약해서 보낸 설움의 시간을 나는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이 장갑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필요했다. 신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나는 살아왔다. 하지만, 이 마법의 도구를 통해 나는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 마법의 장갑에서 극한의 효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컴퓨터를 열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부서질까봐 걱정하면서 살살 타이핑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며칠 후, 나는 한 경기장 앞에 나와있다. 한국의 헤비급 보디빌더들이 모여 올해의 보디빌더를 뽑는 자리였다.

“와, 저 사람들 너무 멋있다!”

보디빌더들은 다양한 포즈를 통해 그들이 길러 온 거대한 근육을 뽐낸다. 사람들은 이들의 멋진 모습에 반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들의 거대한 근육을 가질 생각을 하니 군침이 싹 돈다. 어느덧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모두 끝났다.

“좀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그럴 가치가 있지.”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팬들과의 만남 시간 때문이었다. 입상한 보디빌더들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 주는 시간이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보니까 몸 굉장히 좋으신데요. 꾸준히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의 승리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악수를 한다. 인터넷으로 그에 대해 공부한 뒤,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준다. 어차피 그가 이런 행복을 즐길 날은 오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열기가 나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2등과 3등에게도 똑같이 악수를 청하고 사인을 받고 나니, 나의 몸에 불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사님, 얼른 이 주소로 가주세요.”

너무 많은 몸이 중첩되었는지 근육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느껴졌다. 실시간으로 내가 탄 택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미역처럼 몸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다. 택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집에 내릴 수 있었다. 내가 집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나의 몸을 겨우 붙잡아주고 있던 옷이 터져 버렸다. 잘못하면 나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았다. 나의 침대는 이제 상반신보다도 짧았고, 내가 너무 커져버린 탓에 누우면 그대로 찌그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내가 걸음을 걸으면 조용히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난다.

“말도 안돼...”

이렇게 커졌는데도 그 검은 장갑은 여전히 나의 손에 맞는다. 대체 이 장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는 경이로울 정도이다. 나는 방에 누워 보지만, 이제는 방이 너무 작고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건가?”

이 장갑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일은 이 거대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magic gloves

"Patient, how are you feeling?"

The doctor's voice awoke my closed eyes. My eyelids are so heavy that I can't even open them. I slowly raise my body from the bed. As soon as I hear the doctor, I swallow my saliva with my throat, but fortunately, it doesn't hurt. I take a deep breath and see if I have any pain in my body. Fortunately, there is no pain like cutting myself, stinging me, or pressing me like a stone like yesterday.

"I don't think I'm sick."

The doctor who heard me smiled.

"That's good, isn't it? Then we will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ss."

My heart and kidney were not good since I was born. So I had to perform surgery many times since I was young. The smell of disinfectant in the hospital feels like perfume to me, and the cute pills I take after eating are my friends. With the support of many people's surgical expenses and the help of doctors, most kidney and heart problems have now been solved. I have to manage by following only a few lifestyle habits, but it's much better than what I did when I operated and treated my body. However, there is one problem that must be done to enter daily life. It's rehabilitation. My muscle condition is very poor compared to the general body, so rehabilitation is essential.

"Welcome to the rehabilitation room."

The physical therapist welcomed me. The physical therapist said that he rehabilitated many weak people like me. I will also do my best for rehabilitation.

"Let's get out of the wheelchair."

At the order of the physical therapist, I get out of my chair. After a long time, I thought the world would be coz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en stand because my legs are weak. I try to stand as much as I can, but my legs won't work.

"Now, take a step away from here."

I'll take a new step. I feel tremendous pain in my leg. But if I give up here, I can't walk. I try to walk with my teeth clenched while frowning. My pain seems to be transmitted to the distal nerve through the spinal nerve. It's hard to balance, so my body seems to be staggering like a roly-poly.

"You don't have to overdo it."

The physical therapist is worried. It hurts so much that I think I'm going to give up a rehabilitation. However, I have endured more painful surgery, so I can do this much. I walk five steps and sit back



in a wheelchair.

"You've done a great job!" Let's keep up the good work."

The physical therapist smiles at me. At that time, the physical therapist's cell phone rings. The physical therapist goes out to ask for my understanding and answer the phone.

"Yes, sir, how is the patient doing this time?" Oh, I think it's going to be a little hard this time..."

The physical therapist tried to give me hope that I could, but in fact, the reality was rather harsh. However, I knew that it was not an easy path, so I will never give up and try for rehabilitation.

"Well done! That's it for today. If you have time, go to the supermarket in front of you and try walking. Oh, and from tomorrow, I have to practice lifting, so please buy me gloves."

About two weeks have passed. There have been some positive changes in my rehabilitation. I could walk on crutches. However, my rehabilitation was certainly slower than other patients. I had no choice but to do so. Because I've been lying down all my life. However, the more I rehabilitated, the more painful my body became, and everyone began to feel frustrated because there were no noticeable results. My body was stuffy, too, but it was natural to reflect the irritating reflection of others.

"Oh, this is the market!"

As soon as the rehabilitation class was over, I headed to the market. The crowded market was unfamiliar to me and a shock. It was amazing that people could live so energetically. I felt like I was alone in an alien world. I found that there was still a lot of time left before I could completely return to the world.

"Excuse me, where are your gloves?"

I went into a shabby clothing store in the marketplace and managed to ask questions. An old lady, who was looking up and down at me, smiled mysteriously and kindly told me a story.

"You can find it if you go in there!"

"Thank you!"

I thanked her and looked at the display on which the gloves were placed. Most of the gloves don't seem to fit me. The moment I sighed and tried to turn around, I met the gloves in the corner of the display. The gloves made of black leather seemed to cover my hand perfectly, with the ringer marks left on them. The moment I saw the gloves, I couldn't see the other gloves.

"Will these gloves make me a cool fashion item?"

I didn't know why, if not as much as I saw it on TV, but I thought these gloves would look cool.

"This one, please!"

I came home quickly and tried on my gloves. I thought it was a glove for me that could completely cover my thin hands with only bones left. But I could see something like paper in these gloves. I was curious, so I took out the paper from the glove and read it.

"You are welcome to wear magic gloves. It's easy to use these gloves. With these gloves on, touch the person you want to have the body you want. Then his body will be copied and applied to you."

"This kind of prank is no fun!"

I laughed in vain as if I were speechless. However, I didn't throw away the manual but put it in the drawer in my room. Of course, someone would have played a trick, but there were some expectations. I think it was an expectation that something even a little different would happen to my life. Looking forward to tomorrow's rehabilitation class, I fell asleep.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Your gloves are very nice."

"Luckily, I bought a nice pair of gloves."

After a long time, I and the physical therapist start the class smiling at each other. Today as well, I try to walk on crutches and take off crutches. As expected, it hurts, but now I'm used to it, so I decided not to care.

"Teacher, please help me!"

Now it's time to check if the words in the glove are correct. I look for the teacher's arm with gloves on. I feel as if the warmth is seeping into my gloves. It was an exciting warmth that I felt for me, who had many times when my hands were cold because my blood didn't circulate well. However, the excitement did not last long.

"Does your leg still hurt?"

I nodded in a frown. Every step I took, I still felt serious pain. The training seemed to take longer than I thought. The physical therapist nodded and asked to try another method next time.

"Thank you for your concern."

I was just grateful to the physical therapist who tried to care about me, who was not in better

condition than I thought. When I got home, I took off my gloves and thought it over. I had to make an effort to move forward anyway, but I was wrong only to think of complacency to bring someone else's body.

"It's my fault for believing in such superstition!"

I might look like a snail to others, but little by little I was changing. And I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hange. I went to bed.

"Oh, I slept well."

I stretched unconsciously at the sound of the alarm. But there was something strange about it. Usually, I stretch my body without thinking, and then my muscles hurt, but why am I so refreshed today? I open my eyes and enjoy the refreshing feeling for a while, and then get out of bed to find crutches.

"My crutches..."

The moment my legs touched the ground, I felt relaxed and surprised. I was so happy that I took a step forward. But it didn't hurt at all.

"Why am I not sick?"

I tried jumping and running, but it didn't hurt at all. This was the same feeling as the miracle of Jesus' Red Sea in the Bible.

"Did I bring the physical therapist's body?"

I was so surprised that I took out the manual that I had kept in the drawer. There was a new article written there.

"At first, it takes time to recognize your body and change your body."

I walked to the physical therapist without crutches. The physical therapist was also surprised to see me walking on crutches in a day. He didn't know that his body had been copied to me, but he was amazed that I could walk.

"It's nothing but a miracle. I'll check it out."

I ran out of time doing rehabilitation tests for a day like that. When I came out, the sun was setting. I ran home looking at the sunset. My heartbeat was fast, and I was out of breath and sweating. I've never felt so excited and overwhelmed. Did a miracle happen to me? An unbearable feeling filled my heart. My parents congratulated me when they saw me not walking on crutches. I thought that today might be the happiest day of my life. Now it's time to move forward little by little.

The next day, the results of the rehabilitation examination came out. I mean, I recovered all the muscle strength of a normal person and did not have to undergo rehabilitation anymore. A physical therapist congratulated me, saying that it was the first time for a patient to recover so quickly, but in fact, I knew the answer. I was able to recover because I copied the physical therapist's body through my gloves. I took the physical therapist's body and ran around excitedly. I thought I could use these gloves more actively. This was because I saw the following phrase in the manual I saw yesterday.

"If you wear gloves and come into contact with multiple bodies, the effects overlap."

At this time, there was an advertisement on the street that caught my eye.

"To commemorate the opening of the gym, we will give you a chance to get a free PT!"

I smiled. This wa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I'm sure the gym trainer will give me PT, so he's in good shape. I immediately went to the gym, which was advertised, and signed up for a free PT. A health trainer was immediately placed.

"You've never worked out before?"

"Yes, I've been fighting the disease. I'm going to exercise now."

"It would be a great choice to visit our gym."

That's how I started PT with my fitness trainer. The trainer teaches me a variety of bare-body exercises. I thought these exercises would be hard, but maybe because the physical therapist's body worked hard, it's not that hard. However, if I go as I do now,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my goal.

"What do you do with those instruments?"

"Oh, they're muscle training equipment."

The fitness trainer demonstrates exercise equipment to me. Now it's finally time to get the timing right. I try to copy what the fitness trainer says. I think I know how to do it, but I pretend I didn't understand it on purpose and act strangely.

"I don't quite understand,"

"Member, I'm going to keep my strength in motion, so would you like to touch my muscles?"

Wow, I didn't know the opportunity would come so easily. The original plan was to secretly touch the muscles while exercising, saying they were cool. He is wearing a training suit, but his clear abs, chest, and muscular forearms were noticeable. I smile inwardly at the thought of having that body. The health trainer won't understand why I'm laughing at all. Anyway, I finally decided to work on it.

"Oh, the biceps and triceps need strength. I didn't know exactl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dvice!"

"You'll find out when you do it!" You can get better little by little now."

The health trainer seems very happy because he doesn't know what's in my heart and receives compliments. I touch the area where the trainer puts strength. It is desirable to think that you can have muscles that have become as hard as stones and blood vessels that flow over them. However, this time, unlike when I touch the physical therapist's body, my body feels hot quickly. When I work out with my trainer, I'm embarrassed that I'm sweating more than I thought.

"It's a little hot, isn't it?"

"Yes, it's a little hot."

"You sweat a lot when you work out at first".

"Oh, yes, well...."

Because I could never tell the secret of my gloves, I worked out vaguely. It's beneficial to know how to exercise, but unlike last time, it was suspicious that my body was getting hot quickly, so I felt like I had to go home quickly.

"If I register, I'll come back next time!"

The facilities were fine, but I decided not to go to that gym because it would be strange if the trainer suddenly noticed a change in the body. As soon as I entered the house, I ran into the room and felt my whole body burning. I can feel the muscles filling up my body like a rising bud. My flat chest swells round like a balloon, and I feel my arm muscles crack. The six-pack abs look strong enough to break a glass bottle. The back muscles look like steep mountains, and the leg muscles have also become huge calves and solid thighs.

"This is ridiculous!"

Thinking about my changed body in half a day, I take out the manual in the drawer again and read it.

"As the number of times, you come into contact with others while wearing gloves increases, the speed at which you recognize your body and apply it to your body also increases."

I couldn't just spend the sad time I had spent because I was weak. There was a need for a more effective way to use these gloves. In terms of physicality, I have lived the lowest life. However, through this magical tool, I am growing far beyond my limits. In these magical gloves, you have to find a way to achieve extreme efficiency. I opened my computer and started searching. This is also

the first time I type softly, worrying that my computer will break.

A few days later, I'm out in front of a stadium. It was a place where heavyweight bodybuilders from Korea gathered to select the bodybuilder of the year.

"Wow, they're so cool!"

Bodybuilders show off their huge muscles through various poses. People seem to have fallen in love with their good looks. But the thought of having these huge muscles made my mouth water. The game ended and the awards ceremony was over.

"I've been waiting a little longer, but it's worth it."

The reason I came here today was because of the meeting time with the fans of the winning players. It is time for the prize-winning bodybuilders to say thank you and sign autographs to fans.

"Congratulations on your victory. I'll have to work hard to be like you."

"You're very well, I see," All you have to do is keep practicing."

I shake hands as I congratulate today's winner. After studying about him on the Internet, I tell him a few words and make him feel happy. This is because today is the only day he will enjoy such happiness anyway. The moment I held his hand, I felt the burning heat coming into my body like the sun. Then I asked the second and third places to shake hands and get their autographs, and I felt like my body was on fire.

"Driver, please go to this address at once."

Perhaps too many bodies overlapped, I felt my muscles suddenly getting bigger. In real-time, my taxi was getting narrower and narrower. It was exciting to see my body swell like seaweed, but on the other hand, I was nervous. When the taxi got home, I was finally able to get out of the car. As soon as I rushed into my room, the clothes I had been holding on to finally burst open. My head was about to touch the ceiling. My bed was now shorter than my upper body, and I was so big that it seemed to be crushed when I lay down. As I walked, the ground rang quietly.

"That's ridiculous.

Even though it's so big, the black gloves still fit my hand. It is now amazing how far the limits of these gloves go. I lie down in my room, but now the room is too small and stuffy.

"Is it time to leave?"

With these gloves, I feel like I can live anywhere I go and do anything. Tomorrow I'll have to look for a job where I can work with this huge body.